

## 제 1 교시

## 국어 영역

홀수형

## [1~3] 독서론 : 기대승의 독서법 (39p)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에게 독서는 성현(聖賢)의 글에 담긴 이치를 깨달아 자신을 수양하는 핵심적인 과정이었다. 당시 학자들은 경전의 권위 있는 주석을 충실히 따르는 것을 학문의 기본으로 삼았으나, 고봉(高峯) 기대승은 기존의 해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독서 방법을 통해 학문적 깊이를 더했다. 그는 성현의 글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표면적 의미의 이해를 넘어, 글에 내재된 근본 원리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기대승은 의문이 풀릴 때까지 파고드는 ‘반복적인 탐구’와 이를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며 앎을 완성하는 ㉠‘실천적 체득’을 독서의 두 축으로 삼았다.

기대승이 강조한 ‘반복적인 탐구’는 단순히 글을 여러 번 읽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와 핵심 개념을 완벽히 장악하기 위해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능동적인 지적 활동이다. 그는 한두 번의 독서로는 성현이 글 속에 심어 둔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글의 맥락을 다각도로 살피고 구절 간의 유기적 관계를 따져보며, 조금이라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는 저자의 사유를 피상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유가 성립하는 근본 원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지적인 탐구를 통해 얻은 앎은 ‘실천적 체득’의 단계로 나아가야 비로소 완성된다. 기대승에게 진정한 앎이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몸소 겪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인격과 하나가 되는 ‘체행(體行)’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다. 경전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이 일상 속에서 실천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지식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독서를 통해 파악한 이치를 실제 삶의 문제에 적용하고 부단히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지식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어 독자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다. 이처럼 실천을 통해 획득된 앎, 즉 ‘체득(體得)’된 지혜는 외부의 권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학문적 토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독서법은 기대승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퇴계 이황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지적 동력이었다. 반복적인 탐구로 경전의 논리를 꿰뚫고, 실천적 체득으로 그 원리를 자신의 관점으로 확립하였기에 그는 이황이라는 거대한 권위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이황이 제시한 ‘사단은 이(理)가 발(發)한 것이고 칠정은 기(氣)가 발한 것’이라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대해, 경전의 내용과 자신의 체득을 근거로 논리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독자적인 견해를 펼쳤다. 이는 성현의 글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 치열한 탐구와 실천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1. 기대승의 독서법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지식은 실천을 통해 독자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다.
- ② 사단칠정 논쟁은 기대승의 독서법이 지닌 지적 동력의 결과물이었다.
- ③ ‘반복적인 탐구’는 성현의 글에 담긴 권위 있는 해석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 ④ ‘반복적인 탐구’는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능동적인 지적 활동이다.
- ⑤ ‘실천적 체득’은 지적인 탐구로 얻은 앎을 자신의 인격과 하나로 만드는 완성 단계이다.

## 2.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적 실천을 통해 얻은 지혜는 경전의 권위 있는 주석을 대체할 수 있다.
- ② 앎을 체득하는 과정에서 성현의 글에 담긴 표면적 의미의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 ③ 경전의 가르침을 먼저 체득한 후, 반복적인 탐구를 통해 지식을 명료화한다.
- ④ 독서로 얻은 앎을 실천하는 것은 성현의 사유를 비판 없이 수용하기 위한 과정이다.
- ⑤ 독서로 얻은 이치를 삶의 문제에 적용하며 얻은 앎은 독자적 관점 형성의 기반이 된다.

3. <보기>는 학생이 쓴 독서 일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에 대해 배웠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만약 한 명을 희생시켜 다수가 행복해진다면 그것도 옳은 일일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책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며 공리주의가 비판받는 지점들을 확인했고, 저자가 어떤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는지 따져보았다. 이후, 학급 회의에서 다수결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려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책에서 얻은 고민을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다수결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제야 공리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한계를 몸으로 이해한 기분이었다.

- ① 학생이 저자의 논리를 따져 본 것은 성현의 글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이다.
- ② 학생이 공리주의 원칙을 처음 그럴듯하게 여긴 것은 경전의 권위 있는 주석을 따른 태도이다.
- ③ 학생이 ‘한 명을 희생시켜 다수가 행복해진다면 옳은가’라는 의문을 품은 것은 기존의 해석에만 의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학생이 공리주의의 한계를 몸으로 이해한 것은, 이황의 권위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던 기대승처럼 외부의 권위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⑤ 학생이 학급 회의에 책의 내용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지적인 탐구를 통해 얻은 앎을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실천적 체득’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4~9] 인문 :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8p)

##### 인문 : 국가 권력의 정당화 (9p)

(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본성적으로 ‘폴리스적 동물’이라고 규정하였다. 그에게 인간은 단순히 무리를 지어 사는 존재를 넘어, 폴리스라는 정치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존재였다. 가족이나 마을 같은 기초적 공동체가 생존과 같은 일차적 필요를 충족시킨다면, 국가는 자족적인 삶을 넘어서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공동체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인위적인 계약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현된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자연적 목적은 궁극적으로 ‘공동선’을 실현하여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가 말하는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이성적 활동을 통해 탁월성을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의 행복은 고립된 상태에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오직 다른 시민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의와 우애 같은 덕을 실천하며 공동선을 추구할 때 완성된다. 국가는 바로 이러한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과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는 본질적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선이라는 국가의 목적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운영 원리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지배’를 강조하였다. 그는 한 사람의 뛰어난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보다 잘 만들어진 법이 다스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이라도 감정이나 사사로운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법은 ‘감정이 배제된 이성’으로서 공동체 전체에 보편적이고 공평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비합리적 요소를 ㉡**제어하고**, 예측 가능한 질서 속에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장치였다.

더 나아가 그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초래할 수 있는 폐단을 경계하며 ‘권력의 복수성과 분할’을 역설하였다. 권력이 소수의 개인이나 단일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공동선을 저해하는 폭정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는 부유층과 빈민층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관계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고**, 입법·행정·사법적 기능이 서로 다른 주체에게 분담되어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혼합 정체의 이상을 제시했다. 이러한 권력의 분할은 특정 세력의 독주를 막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여 공동선 실현에 기여하는 현실적 방안이었다.

(나)

중세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신학적 세계관 속에서 재해석하여 국가론을 전개했다. 그 역시 국가를 공동선을 추구하는 자연적 공동체로 보았으나, 국가 권력의 정당성 문제는 신의 섭리와 인간의 이성이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조명했다. 그에게 정치 권력의 원천은 신이지만, 그 권력이 현실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도덕적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물리적 ‘강제력’이 아닌 법의 정의로움에서 ㉣**비롯된다**. 그는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이 그 자체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위 규범인 ‘자연법’에 근거해야만 정당성을 얻는다고 보았다. 자연법이란 인간이 이성을 통해 파악하는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 실정법은 이 자연법의 원리를 구체화하여 공동선을 지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은 법이 아닌 폭력에 불과했다.

정의로운 법이 공동선을 지향할 때, 백성들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법이 옳다는 이성적 판단에 따라 기꺼이 복종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발적 순응’이다. 아퀴나스는 강제에 의한 통치보다 이러한 자발적 순응에 기반한 통치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통치자의 ‘도덕성’은 법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공동체

정답 및 해설

| 문항<br>번호 | 정답 | 문항<br>번호 | 정답 | 문항<br>번호 | 정답 | 문항<br>번호 | 정답 |
|----------|----|----------|----|----------|----|----------|----|
| 1        | ③  | 2        | ⑤  | 3        | ⑤  | 4        | ⑤  |
| 5        | ⑤  | 6        | ③  | 7        | ⑤  | 8        | ③  |
| 9        | ③  | 10       | ⑤  | 11       | ③  | 12       | ②  |
| 13       | ③  | 14       | ⑤  | 15       | ⑤  | 16       | ⑤  |
| 17       | ④  |          |    |          |    |          |    |

1. 정답 : ③  
해설 : ③ 1문단에서 기대승은 ‘기존의 해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독서 방법’을 추구했다고 언급하고, 2문단에서 ‘반복적인 탐구’는 저자의 사유를 피상적으로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근본 원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반복적인 탐구’가 권위 있는 해석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진술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 정답 : ⑤  
해설 : ⑤ 3문단에서 ㉠‘실천적 체득’은 독서로 파악한 이치를 실제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얻은 ‘체득된 지혜’는 외부의 권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학문적 토대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4문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기대승이 이항의 권위 앞에서도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펼칠 수 있었다고 서술한다. 따라서 실천적 체득을 통해 얻은 앎이 독자적 관점 형성의 기반이 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가장 적절하다.
3. 정답 : ⑤  
해설 : ⑤ 윗글의 3문단에 따르면, 기대승은 독서를 통해 파악한 이치를 실제 삶의 문제에 적용하고 성찰하는 ‘실천적 체득’을 통해 앎을 완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기>의 학생은 책에서 얻은 공리주의에 대한 고민을 ‘학급 회의’라는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식을 삶의 문제에 적용하여 내면화하는 ‘실천적 체득’의 과정에 해당한다.
4. 정답 : ⑤  
해설 : (나)에서 아퀴나스는 국가를 공동선을 추구하는 자연적 공동체로 보면서도, 국가 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그는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이 그 자체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파악하는 보편적 도덕 법칙인 ‘자연법’에 근거해야만 정당성을 얻는다고 보았다.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은 법이 아닌 폭력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므로,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이 상위 규범인 자연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선지 ⑤는 아퀴나스의 생각으로 적절하다.

5. 정답 : ⑤  
해설 : (나)에서 아퀴나스는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이 상위 규범인 자연법에 근거해야만 정당성을 얻고 공동선을 지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가)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동선 구현을 위해 제시한 ‘법의 지배’나 ‘권력의 분할’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더라도, 그 결과물인 법이 자연법이라는 도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동선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임을 추론하게 한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관점에서는 제도적 완결성만으로는 공동선 실현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6. 정답 : ③  
해설 : (나)에서 아퀴나스는 국가를 공동선을 추구하는 자연적 공동체로 규정한다. 폭군에 대한 저항은 그가 공동선을 외면했기 때문에 정당화되지만, 저항이라는 행위 자체가 공동선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면, 이는 국가의 목적인 공동선 실현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저항권 행사는 폭정을 제거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 공동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7. 정답 : ⑤  
해설 : (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사람의 뛰어난 통치자보다 잘 만들어진 법이 다스리는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감정이나 사사로운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기>의 왕 P는 공동체 생존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기존의 법(대헌장)을 정지시키고 자신의 명령으로 통치하고 있다. 이는 감정이 배제된 이성으로서의 법이 아닌, 통치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통치이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8. 정답 : ③  
해설 : (가)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사람의 뛰어난 통치자보다 잘 만들어진 법이 다스리는 ‘법의 지배’를 강조하였으므로, 현명한 통치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폭정으로 변질될 위험을 경계하며 부유층과 빈민층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이해관계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혼합 정체를 제시하였으므로,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ㄴ에는 동의할 것이다.
9. 정답 : ③  
해설 : ㉡의 ‘반영하고’는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라는 외부의 실정을 정치 과정에 드러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투영하고’는 주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과 같은 내면적인 것을 다른 대상에 비추어 나타낸다는 의미로 쓰이므로, 다양한 사회 계층의 객관적 이해관계를 드러낸다는 문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